

大學에서의 作文教育

印 權 煥
(高麗大 國語國文學科 教授)

오늘날 大學의 作文教育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올바르게 인식되고 있지 않으며, 教育實態도 매우 부실한 형편이다. 따라서 作文教育의 중요성과 문제점이 再吟味되어야 하고, 나아가 그 바람직한 改善方向으로 원리적 教育目標의 설정, 教育與件의 개선, 教材의 개편 및 효과적인 學習運轉과 評價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I. 作文教育의 重要性

大學教育의 목표는 심원하고 포괄적인 學問의 연구와 이를 통한 學術의 심오한 이론 및 精緻한 활용 방법을 연마시키는 데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대학에서는 專攻科目과 教養科目으로 대별되는 많은 학과목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전공과목은 해당 학과의 전공학문 연구상 필히 이수하여야 할 과목을 말하며, 교양과목은 일반적으로 지도자적 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과목을 말한다.

대학에서의 作文敎科는 후자 즉 교양과목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작문교육은 어느 전공분야에도 해당되지 않는 독자성을 갖는 教養教育(liberal education), 一般教育(general education)의 한 갈래로서 폭 넓은 교양을 갖춘 지도자적 인격, 특히 모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주체적 인물을 양성하는 데 기본이 되

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대학의 教養國語의 교육목표는 ① 명확한 언어능력의 배양, ② 합리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능력의 함양, ③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표현능력의 양성, ④ 자국어론 통한 의사소통 기능의 연마, ⑤ 민족 고전의 감상과 이해, ⑥ 세련된 심미감의 증진, ⑦ 한국인으로서의 자각 등에 두고 있다. 이 중에서 ①, ②, ③, ④가 교양국어 교육 중에서도 작문교육에 해당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양국어 교육에서 차지하는 作文教育의 중요성이 막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문교육의 중요성이 국어교육 그 자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봄은 잘못이다. 사실 우리 인간은 言語生活, 文章生活를 통하여 사회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지식과 체험의 관계를 이루며, 표현과 이해의 진달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이러한 언어·문장 활용의 기초 위에서 다른 모든 분야의 지식을 흡수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행위가 그 나라의 모국어를 토대로

이루어짐은 말할 나위도 없다. 즉 어떤 분야의 學問을 막론하고 그것은 모국어를 통해 「듣고」, 「읽어서」 얻어지며, 다시 「말하고」, 「써서」 활용된다.

다시 말하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지식도 학문도 얻을 수가 없으며, 또 충분히 활용될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 모국어를 바탕으로 한 聽取力(듣기), 發表力(말하기), 表現力(쓰기), 諳解力(읽기), 理解力(알기), 思考力(생각하기), 文章力, 作文力(짓기) 등이 모든 분야의 학습에 앞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 가운데서 작문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쓰기에 해당하는 表現力(writing), 짓기에 해당하는 作文力(composition)이지만, 「말하기」가 음성을 통한 것임에 비하여 「쓰기」는 문자를 통한 것일 뿐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라 하겠으며, 「짓기」는 결국 「생각하기」를 바탕으로 하여 「쓰기」에 결부되고, 그것은 또 다시 「읽기」와 「알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言語生活, 文字生活 전반에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교육에 있어 作文教育은 모든 공부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근본적 중요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II. 作文教育의 現況과 問題點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망각하는 습성이 있다. 그것은 太陽이나 空氣의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것과 같다. 국어의 언어와 문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한국말을 할 수 있고, 한글을 깨친 이면 누구나 한글 문장을 쓸 줄 안다는 생각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 민족은 우리 말과 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 많은 기성세대들이 그네들의 修學期에 한국 언어와 문장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 이후의 세대 역시 이런 점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우리 언어와 문장에 대한 왜곡된 보편적 현상은 大學社會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학의 국어교육이 커다란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실험대학제도 실시 이후 졸업학점이 140학점으로 줄어든 이래, 교양국어 과목의 학점과 시간이 날로 축소되어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기당 4시간 4학점에서, 3시간 3학점으로, 다시 2시간 2학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자연계의 학과에서는 연중 1학기만을 부과하던가 아니면 그것마저도 없애버리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양국어 자체가 이렇다 보니 여기에 포함된 作文 또한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학교당국의 국어교육에 대한 제도적 제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대학국어나 작문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나 열의가 또한 날로 식어가고 관심이 점차 줄어들다는 데도 문제점이 있다. 한 예로 오늘날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英語 등의 외국어에 기울이는 노력의 몇 분의 일도 국어를 위해 기울이지 않는다. 외국어의 spelling, accent, intonation, 그리고 어휘의 뜻과 활용 문법 및 문장 구조 등은 깊이 있게 공부하고 따지면서 국어야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고, 국어 문장의 작성이야 한글을 알면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

이처럼 날로 여건이 불리해지고, 제도적으로 제한이 가해지며, 배우는 이들로부터 경시되어가고 있는 대학의 작문교육의 실정에 비추어, 그러면 오늘날 대학생들의 국어실력, 작문능력은 어떠한가? 이 방면에 종사하는 대학국어 작문 담당자들의 한결같은 말은 오늘날 대학생들의 作文能力이 형편없다는 것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편지 한 장 제대로 쓸 줄 모른다는가, 이력서나 자기 父母의 이름이나 本籍地를 漢字로 쓸 줄 모른다는 이야기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맞춤법, 漢字쓰기, 띄어쓰기는 물론, 대학생들의 文章에서 앞뒤 문맥의 호응이나 논리적 긴밀성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국어답지 않은 표현, 부정확한 표현, 비열하고 속된 표현, …… 그리하여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글은 고사하고 글로서의 기본적인 요

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오늘날 속일 수 없는 일반적인 대학생들의 작문실력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언제까지나 여건의 불비만을 탓하고, 제도적 제약을 원망하며, 학생들의 저하된 작문능력을 한탄하고만 있을 수 없기에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시급하며, 그러기 위하여 우선 그 부진의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오늘날 대학생들의 작문능력의 저하는 교육 및 사회적 여건의 불비, 대학의 교육적 제도상의 한계, 그리고 작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의 자질과 부실한 학습 방안 등의 세 가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교육 및 사회적 여건의 不備는 입시위주의 왜곡된 高校敎育과 실용주의적 世態風潮에서 기인된다.

1986년도부터는 대학입시에 作文이 일부 부과된다고 하여 어느 정도 개선된 면모를 보일 전망이긴 하지만, 현재와 같은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입시제도하에서 고교교육에서의 작문교육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어느 과목보다도 국어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 중에서도 작문교육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고교교육에서 客觀的 四肢選多型 중심의 문제와 단편적 지식의 암기식 학습이 강요되는 실정에서 작문능력의 향상을 기할 수는 없다.

作文은 단순히 글 짓는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作文은 평소의 풍부한 독서를 통한 지식·교양·체협의 확대와 깊이 있는 思考와 날카로운 觀察, 풍부한 想像과 끈질긴 推理 등의 정신활동의 토대 위에서 원활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평소의 체계적인 독서와 思考力, 觀察力, 想像力, 推理力의 체계적인 연마가 실제적인 작문에 앞서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昨今의 입시위주, 名門爲主, 人氣學科爲主의 짐수따기 중심인 고교교육에서 이러한 교육을 기대할 수 있을까?

다음으로 일반 사회풍조로서 지나친 實用主義의 경향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일반사회에서의 大學觀이나 學問觀은 지나치게 出世爲主, 拜金

爲主, 경제적 實利爲主로 고착되어 있다. 여기에 대학진학의 궁극적 목적이 있고, 학과선택의 절대적 기준이 있다. 이와 같은 사회풍조에서의 국어과목이나 작문공부는 좋은 점수를 얻어 前記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결국 작문공부는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볼 때 경제적 효용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거들떠 볼 필요가 없는 것이 되며, 모든 학문의 기초적 바탕이 된다는 생각은 더구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고교과정을 통하여 작문의 기초적 훈련이나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學生을, 지나친 경제적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관이나 학문관에서, 국어를 경시하는 사회풍조 속에서, 丙申成績이나 學力考查 成績만으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大學의 입장에서 어떻게 단시일 내에 대학생들의 작문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둘째, 대학의 교육제도상의 한계는 時間數의 축소 지향과 學點의 과소 및 학급당 과다한 學生數에 따르는 운영상의 문제에서 나타난다.

1945년 해방 이래 각 대학에서 실시된 교양국어 교육에서 국어시간 중 作文時間을 독립시켜 시행하였던 것은 일반적으로 1960년대 중반 이후 敎養學部가 독립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대체로 주당 2시간으로 시행되었던 작문시간은 그 후 점차 줄어들더니 그나마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없어지거나 독본 시간에 포함되어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학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교양국어에서 작문학점이 독립되어 있는 대학은 극소수이다. 그나마 인정되는 대학도 1학점이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학급당 인원수이다. 교육개혁 조치 이후 급격히 증가된 학생수를 감당하지 못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國語分班을 대략 60~70명에서 100명 이상의 대단위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교육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작문교육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결국 제한된 시간과 과소한 학점, 여기에다 과밀한 대단위 강의라는 악조건 밑에서 대학의 작문교육은 그 막중한 중요성에 비추어 지지부

진한 상태에서 진전은 커녕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인 것이다.

세제는 작문교육의 일선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로서, 이들의 교육적 자질과 효과적인 학습방안과 평가 여부에서 제기된다.

우선 작문교육 담당자의 자질 문제다. 먼저 작문교육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높은 교육적 안목과 노련한 교육적 기술을 요한다. 그러나 전임 교원의 수적인 열세로 인해 주로 시간강사가 작문을 담당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여기서 작문교육이 부설해질 수밖에 없는 근본 요인이 있고, 대학 신입생들의 강사에 대한 신뢰감의 결여로 결과적으로는 작문과목에 대한 혐오감마저 유발시킨다.

또 하나의 문제는 作文教育 그 자체에 대한 과학적인 교육적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해서 생기는 효과적 학습방안과 평가의 결여다. 작문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학에서의 작문교육에 대한 원리적, 실제적 문제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연구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방면의 연구나, 이 방면의 연구자는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은 이 분야가 독립된 연구분야로 정립되지 못한 학계의 실정에 기인하는데, 이로 인해 빚어지는 교육적 영향은 매우 크다. 즉 무엇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하여 작문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교육적 배려 없이, 막연히 설명하고 쓰게 하고 다시 검인이나 찍는 식의 교육으로 대학생들의 작문능력을 증진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지금까지의 작문교육은 지나치게 理論中心이었다는 점이다. 작문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 작문교육은 실제로 쓰게 하는 훈련을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 아무리 작문의 이론에 대하여 잘 알고, 지적 창조력이나 정서적 감수성이 뛰어난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고 효과적인 글을 쓸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作文은 결국 자꾸 써 보는 꾸준한 훈련에서 장기적으로 그 능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서 효과적인 학습방안이나 평가에 대한 담당자들의 과학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연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Ⅲ. 바람직한 改善方向

1. 原理的 目標

어떤 분야의 학과목이든 그 시행에 앞서 해당 학과목의 원리적 교육목표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教材는 결국 이 원리적 교육목표를 실천하는 수단이 되며, 학습방안이나 평가도 궁극적으로는 교육목표의 수행에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학에서의 작문교육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는 作文教育에 대하여 뚜렷한 교육목표의 설정이 없이 막연하게 국어교육의 일부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사실에도 있다.

대체로 大學教育의 목적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원만하고 유능한 개인과 지도자적 국민을 양성함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심원하고 포괄적인 學問의 研究와 이를 통한 學術의 심오한 이론 및 정치한 활용 방법을 연마시키는 데 두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작문교육도 대학교육의 일환인 만큼 이러한 대학교육의 대원칙에 종속된다. 특히 어떤 분야의 학문을 막론하고 國語를 통해 「듣고」 「읽어서」 얻어지며 「말하고」 「써서」 나타내고 활용된다.

이렇게 볼 때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에 해당하는 國語教育은 모든 학문의 학습에 있어 기본이 되기 때문에 大學教育 目標의 수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는 국민학교나 중·고교 내지 대학에 있어서까지 국어교육의 핵심요소가 되거니와 이 중 作文에 해당되는 것이 「말하기」와 「쓰기」이다. 「듣기」 「읽기」가 理解에 해당한다면 「말하기」 「쓰기」는 表現에 해당된다. 그리고 「말하기」가 音聲을 통한 표현방법이라면 「쓰기」는 文字를 통한 표현방법이다. 이렇게 볼 때 「쓰기」만이 作文 영역의 핵심분야가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쓰기」에 해당하는 作文教育의 目標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대체로 ① 능률적이고 창의적인 思考

能力的 배양, ② 풍부하고 명확한 語彙能力的 확대, ③ 적절하고 합리적인 表現能力的 증진, ④ 정확하고 논리적인 文章能力 연마의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다.

①의 경우는 실제의 작문에 앞서서 思考力の 배양이다. 흔히 “아무리 글을 쓰려고 해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 한 줄도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는 평소 思考의 축적이 없는 데서 생기는 현상이다. 思考力の 배양에는 평소의 꾸준하고 습관화된 독서, 사색, 명상, 관찰이 요청된다. 끊임없이 책을 읽고 사색을 하며, 人情과 事物을 유심히 그리고 에리하게 관찰하는 습성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推薦圖書를 통한 독서의 권장과 讀後感의 작성, 그리고 感想文, 日記文, 紀行文 등을 쓰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의 경우는 풍부한 語彙力을 기르는 문제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하여는 많은 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생각도 그에 해당하는 말을 알고 있지 못하면 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어, 방언, 반대어, 유사어, 고유어, 파생어, 외래어 및 漢字와 漢字語에 대한 평소의 훈련이 요청된다. 항상 「국어사전」이나 「漢字玉篇」을 가까이 놓고 끊임없이 활용하고, 기 존문장에서의 특이한 어휘나 독특한 표현을 본받는 훈련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의 경우는 적절한 表現力을 키워가는 일이다.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가지고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作文의 성패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꾸준한 문장연습을 통하여 문체, 수사, 묘사, 비유, 기교 등의 문장기술을 연마하여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의 경우는 직접 글을 만들어 내는 문장구성력의 양성이다. 여기에는 주제문 쓰기, 아우트라인 작성, 단락짓기, 푸릇트의 구성, 논리적 전개 외에 각종 문장작법, 실용문 쓰기, 논문작법 등의 훈련이 요청된다.

한편 이상과 같은 作文의 要領을 깨우치고 실천하기에 앞서 맞춤법, 띄어쓰기, 구두점 찍기, 원고지 쓰기, 퇴고, 교정 등을 기본적으로 알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2. 教育 與件

현재 전적으로 미비된 작문 교육여건의 개선에는 허다한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모든 대학이 전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즉 제한된 졸업학점, 여기에 따르는 시간의 배정문제, 그리고 폭증한 학생의 학급당 수용한제, 유능한 담당자와 조교의 확보 문제 등이다. 바람직한 작문교육을 위해서는 이상의 문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요청되나 이는 현실적으로 한계성이 있는 문제다. 그러므로 현재의 여건에서 가능한 선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이루어져야 할 문제는 대학국어에서 讀本과 作文이 과목상 분리되어야 하는 점이다. 독본과 작문은 서로 그 교육목표가 다르고 학습진행이나 평가문제도 그 성격을 달리 한다. 과거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어교육이 올바른 독본교육도, 실속 있는 작문교육도 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현 여건상 작문의 학점과 시간수는 年中 週當 2시간 2학점이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내지 40명 정도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작문의 담당자는 전임교원이나 노련한 경험자이어야 하며, 담당자에게는 작문만을 주로 처리하는 조교가 반드시 배정되어 작문의 칩삭문제의 처리를 전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밑받침이 있어야 한다.

3. 教材

과거 대학국어 교재에서 독본과 작문이 분리되었던 것은 1965년경부터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대학에 국한된 일이었고, 그나마 일부 분리되었던 대학들도 그 후 시간의 축소에 따라 다시 합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독본과 작문은 시간의 분리와 함께 교재도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내용상 연계성이 있는 문제를 다룰 수는 있다.

교재의 체제에 있어서는 「이론편」과 「작문편」

으로 양분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문은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따르는 실제의 작문이 중요하므로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다루어 한 이론에는 반드시 여기에 결부되는 교정문제나 작문문제를 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필자가 있는 高大의 현용 교재 「문장연습」 내용을 보면 대략, I 국어의 이해, II 작문의 기초, III 작문의 실제, IV 개념과 논리, V 연습문제의 5부로 나뉘어져 있다. 高大에서는 1984년부터 作文 학습점이 한 학기에 한해 2시간 1학점으로 독본과 분리됨에 따라 새로 교재가 개편되었는데, 사용결과에 따라 많은 수정이 요청될 것으로 보고 있다. I에서는 「언어의 이해」, 「문의 이해」, 「한자·한자어의 이해」 등 언어와 문장, 그리고 한자어 등 문장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들의 이해를 시키고, II에서는 「국어정서법」, 「원고용지 사용법」, 「일상생활과 실용문」 등 실제의 작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다음 III에서는 「주제와 구성」, 「수사와 기교」 등 효과적인 문장 작성상의 훈련을 도모하고, IV에서는 「설명과 논증」, 「논문작성법」을 통하여 논리적인 문장, 특히 논문작성법에 중점을 두어 다루고 있다. 끝으로 V는 연습문제로서 앞의 I~IV에서 다루어진 이론적인 문제들에 해당하는 작문문제 30장을 수록하고 있다. 주로 고쳐쓰기 문제, 설명하는 문제, 작문문제 등의 첨삭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지정된 날자에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담당자는 그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첨삭하여 돌려준 다음 모범답안에 의거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교재는 작문교육의 성패 여부를 가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문교육의 원리적 지침에 입각하여 이것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하며, 반드시 독본교재와 분리되어야 하고 또 첨삭문제를 통한 실제의 작문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습문제를 두어야 할 것이 요청된다.

4. 學習運營과 評價

앞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作文은 讀本과 그 교육원리나 시간 및 교재에 있어 구별되고

달라져야 하는 만큼, 학습운영에 있어서도 독자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면 작문교과의 學習運營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작문교과의 운영에 있어 먼저 강조되어야 할 점은 어디까지나 理論보다 作文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작문에 있어 이론의 해설이 전혀 무용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론만으로 작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론에 있어서는 해당 작문분야에 대한 이론부분을 읽고 설명하며 작문에 따르는 요령과 체험담 등을 간단히 덧붙이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실제의 작문의 체험을 통하여 해당 작문분야에 대한 이론을 귀납적으로 터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꾸만 반복하여 글을 짓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名文家라 하더라도 첫 작문에서부터 名文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자꾸만 쓰는 가운데 좋은 글이 되어 가고 그 가운데서 名文이 나온다. 그러므로 마치 운동선수가 하드 트레이닝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것처럼 作文의 能力은 반복적인 작문을 통하여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글을 쓰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작문에 있어 제한된 시간 내에 완성하도록 하는 경우와, 과제물로 하여 시간여유를 가지고 지어 오도록 하는 경우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방법을 고루 활용함이 좋을 듯하다.

다음으로는 添削制度의 활용이다. 작문이 중요하다 해서 짓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여기서 첨삭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어디가 틀렸고 잘못되었는가? 또는 어느 부분이 좋고 잘 되었는가? 어떤 점을 고치고 빼며, 또 추가해야 하는가? 앞으로 어떤 점을 유의하고, 어떤 면을 시정해야 하는가? 이런 모든 점에 담당자의 加筆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口頭說明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요청된다. 여기에는 학급당 적은 학생수, 유능한 조교의 활용 등이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첨삭제도

는 시행되어야 하며, 될 수 있는 여건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설사 여건이 불비하다 하더라도 작문중심 교육은 그대로 시행되어야 하며, 완벽한 칩삭이 불가능할 경우 부분적인 또는 문제별 칩삭만이라도 가능한 한 도 안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칩삭문제의 종류와 유형에 있어서는 작문교육 목표에 입각, 그 교재에 다양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 요청된다. 대체로 그 유형은 수정 또는 고쳐 쓰는 문제와 완전한 작문문제로 크게 양분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표준어와 방언, 맞춤법, 띄어쓰기, 구두점, 원고지 쓰기, 원고 교정, 인쇄 교정, 한자 쓰기, 구문요소 이해, 文과 非文, 基本文과 變形文 등이 해당하며, 후자의 경우는 각종 실용문, 문예문 쓰기가 해당된다. 작문의 경우 반드시 원고지 형태의 용지를 사용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작문학습의 평가는 평소에 제출토록 하는 칩

삭문제에 대한 제출 여부 및 그에 대한 평가와 이론 부분에 대한 별도의 시험 결과 등의 종합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이상으로 大學에 있어서의 作文教育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은 작문 교육은 단순한 국어교육에만 그치지 않는, 다른 모든 분야 학습의 기초가 되는, 그리고 대학교육이 목표로 하는 유능하고 지도자적 인격을 양성함에 필수적인 과목임을 명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우리 先人들의 人材登用의 관문이었던 科擧라는 것도 결국은 작문시험이었음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책당국이나 학교당국, 그리고 과목 담당자나 학생 모두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